

소득세 측면에서는 연말보다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근래에 와서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자의나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퇴직체감 시기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앞당겨졌다고 하니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현실속에선 멀어져간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의해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중의 하나는 창업을 해야 하는 시기와 창업에 따른 세금절약 방법이다.

창업을 하는 경우 어떠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자

사업을 시작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세금은 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사업에는 어느 쪽이 적합한지 잘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일반과세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사람은 전년의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만 앓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초기시설투자비용(인테리어, 기자재 등)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모조모 따져보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창업을 하기에는 연말보다 연초가 유리하다

그렇다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연말과 연초중 언제 개업을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소득세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는 장부가 아닌 정부에서 정해주는 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원칙이 바로 경비율제도 중 단순경비율적용이다.

단순경비율이란 정부에서 정해주는 일정정도의 율을 매출액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업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개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개시한 첫해에 사업이 잘돼서 많은 매출과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의 경우라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창업한 당해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사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내면되므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보통 단순경비율은 기장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보다 더 넉넉한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업한 연도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업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을 가급적 키울수록 절약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이왕 시작할 사업이라면 11월이나 12월 등 연말에 창업해 1~2달의 적은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1월에 창업해 12달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그러나 실제 창업연도에 매입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예외).

창업한 다음연도에는 창업연도의 실제 사업실행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즉, 연중에 창업한 경우라도) 연으로 환산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액으로 판정하게 되므로 창업 다음연도에는 창업연도의 혜택이 없어진다. 또한 사업초기에 결손이 발생되는데, 15년내 공제가능한 상태에서 첫연도가 일부 몇 달만으로 책정되므로 일부 억울한 면이 있다. 따라서 기왕에 창업을 할 생각이라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연초를 선택해 하는 것이 좋다.